

박사학위 논문

## 풍석 서유구 산문 연구

김대중

2011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박희병 선생님

본고는 풍석(楓石) 서유구(1764~1845)의 산문세계에 대한 연구다.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비적 고찰, 산문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산문세계에 대한 비평적 조망이 그 셋이다.

예비적 고찰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서유구 문집의 서지적(書誌的) 특징을 검토하고 작품 편년 작업을 한다. 본고의 주안점은 단순한 형태 서지학적 기술에 있지 않다. 문집의 서지적 특징에 반영된 문화사적 동향과 서유구의 작가의식에 본고는 유의한다. 작품 편년은 서유구 산문세계를 삶의 국면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 다음으로 서유구 산문의 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서유구의 학문적·문학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경화 사족(京華士族)으로서의 면모, 서적의 수집정리에 일가견이 있는 장서가 내지 학자로서의 면모, 지식의 효용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실학자로서의 면모가 그 셋이다. 서로 이어지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서유구의 복합적인 면면을 단순화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어서 서유구 산문의 전개과정을 조감한다. 서유구처럼 활동 기간이 길고 삶의 굴곡이 있는 작가의 경우, 작품세계의 통시적 특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비적 논의를 마친 뒤, 서유구의 산문세계 전반을 검토한다. 아직 서유구 산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분석적 접근을 통해 주요 작품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한다. 산문 분석은 다음 네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주제는 '교양을 통한 자기형성'이다. 서유구의 서화(書畵) 감상, 삶에 대한 심미적 관점, 탈속적 인생관,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 여가활동을 통한 내면의 확충 등이 논의된다.

두 번째 주제는 '사실의 추구'다. 서유구가 추구한 '사실'은 양면적이다. 엄밀한 실증적 지식으로서의 '사실'과 생동하는 사물의 진면목으로서의 '사실'이 그 양면을 이룬다. 따라서 서유구가 추구한 '사실'은 구체적인 생활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자연경'(自然經) 개념이 특히 주목된다. 이 개념은 '자연=근원적 텍스트'라는 사고를 압축한 것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유구의 근원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생활세계에의 밀착적 접근'이다.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유구의 문제의식은 농학을 통해 구현된다. 본고는 좁은 의미의 농학이 아니라 '삶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농학' 내지 '현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농학'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나면, 서유구의 농학은 주변부적 인물에 대한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불우하거나 미친한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과 연민을 담은 작품들을 검토한다.

네 번째 주제는 '삶의 굴절에 따른 자기옹시'다. 청년기 서유구의 자기옹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강한 자기애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계에서 축출되어 가난을 체험하면서 그의 자기옹시는 크게 달라진다. 그 결과 서유구는 말년에 자신의 삶을 '다섯 가지 허비'로 요약하면서 지극히 초라한 것으로 그린다. 그리고 서유구 자신은 장수한 대신, 그의 아들과 아내를 비롯하여 많은 집안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 그런 서유구의 정회를 토로한 작품들을 함께 다룬다.

이상의 네 방향에서 산문작품을 분석한 다음, 포괄적인 시야에서 서유구 산문을 비평적으로 조망한다. 본고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로 대변되는 서유구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삶의 최종적 귀결과 가치지향을 ‘임원경제학’으로 개념화한다. 본고는 ‘임원경제학’에 비추어 서유구 산문의 전체상을 조망하는 데 치력하며, 여기에 본고의 특점이 있다. 이제까지 『임원경제지』에 대한 연구와 서유구 문학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둘의 상호관계 속에서 비로소 서유구 산문세계의 가치지향이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본고는 이 지점까지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시야를 더 넓혀, 서유구가 동시대의 어떤 공동의 모색을 대변한 것인지, 그 속에서 서유구가 이룬 성취는 무엇인지, 그 이면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짚어본다. 또한 서유구의 가치지향이 『규합총서(閨閣叢書)』로 대변되는 ‘여성 실학’과 친연성을 떠나는 점에 주목하여, 서유구의 ‘임원경제학’이 ‘여성과의 지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의미 부여한다.

끝으로 서유구의 문학적·학문적·실천적 모색을 역사적 지평에서 음미한다. 서유구는 국내적으로는 가학(家學)의 전통과 연암일파(燕巖一派)의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명청대(明清代)의 학문적·문학적 성과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화했다. 본고의 주안점은 단순한 수수(授受) 관계의 확인에 있지 않다. 전대(前代)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에서 서유구가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주체의식을 보여주었는지에 그 주안점이 있다.